

지역 소식통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10일 개장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파도와 고운 백사장이 펼쳐진 전북 고창군의 명품 해수욕장이 활짝 문을 연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서해안 최고의 피서지인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이 내일(10일)부터 8월18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군은 샤워장,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해리면과 상하면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위해 전문 안전관리요원 8명을 배치하고, 수상오토바이와 고무보트를 활용한 해상순찰도 가동된다.

고창군은 올해 '해양치유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내 노래방 운영하며 미술활동 기반의 무료 심리 분석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공공시설 18곳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 설치

정읍시가 성평등가족부 공공 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10일까지 시내 공공시설 18곳에 생리대 지급기 30대를 설치하고 무상 지원을 시작한다.

1차로 지급기가 설치되는 18곳은 시청 본청과 제2청사, 시립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가족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체육관, 신대인청소년문화회관, 여성문화관을 비롯해 수성동, 시가지, 연지동, 초산동, 칠보면 행정복지센터, 체육트레이닝센터, 내장산국민여가캠핑장, 동화농민기념관, 내장산자연휴양림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로의 삶을 지켜온 30년 동행

매일 아침 정읍 칠보를 달리는 경운기... 장애인 어르신 24시간 지키는 진한 우정

정읍시 칠보면에는 주민들치고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한 '단팍'이 있다. 정정철(92)어르신과 교육동(86)어르신이 그 주인공이다.

매일 아침 칠보면 일대에는 어김없이 경운기 시동 소리가 울려 퍼진다. 정 어르신이 고 어르신을 적재함에 조심스레 태우고 나서는 길이다.

두 사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 앞길을 지나 시원하게 뻗은 동진강 변을 나란히 달린다. 지적장애와 거동 불편으로 자칫 집 안에만 갇혀 지내기 쉬운 고 어르신을 위해 정 어르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는다. 이 투박한 경운기는 세상에 하나뿐인 두 사람의 전용 자가용이다.

두 어르신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다. 이들의 특별한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갈 데 없이 처량한 처지에 놓여있던 고 어르신을 정 어르신 가족이 집으로 데려왔다.

특히 2023년 세상을 떠난 정 어르신의 아내가 생전에 고 어르신을 친가족처럼 정성껏 돌봤다. 아내가 남긴 따



정읍시 칠보면에는 주민들치고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한 '단팍'이 있다. 정정철(92)어르신과 교육동(86)어르신이 그 주인공이다.

뜻한 내리사랑은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정 어르신은 24시간 내내 고 어르신의 곁을 지키고 있다.

세찬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경운기 위에서 환하게 웃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핵가족화된 현대 사회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친형제보다 더 진한 우정으로 30년을 함께 해 온 이들의 일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안용운 칠보면장은 "매일 출근길마다 마주하는 두 분의 경운기 나들이야말로 칠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며 "30년을 함께한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각박한 세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내 착한가게 7000호 달성 기념 단체 가입

부안군, 최식당 등 8개 업소 착한가게 가입... 지역사회 위한 정기기부 동참

부안군은 9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전북 착한가게 7000호 달성 기념 부안군 착한가게 단체가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입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은영 사무처장, 김정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위원, 착한가게 가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해 전북 착한가게 7000호 달성을

축하하고 지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권익현 군수, 김정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인사말에 이어 기부자 대표 소감, 착한가게 단체가입 현황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식당 등 8개 업소가 착한가게에 새롭게 가입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에 동참했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표적인 나눔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한편 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다양한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 한빛원자력본부, 임대용 농기계 6대 기탁

고창군이 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임대용 농기계를 기탁받아 지역 영농 현장에 활용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리면에 위치한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용 농기계 기탁식이 열렸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 박성만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김성면 한빛원전본부 본부장 및 관계자, 지역 농업인 50여명이 함께했다.

농기계 기탁은 고창군과 한빛원자력본부의 상생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농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적극 반영해 맞춤형 농기계 6대(6900만원 상당, 농업용 굴착기 2대, 범용 관리기 4대)를 지원했다.

농기계들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해리면, 상하면, 심원면 등 인근 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임대 장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업인들의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영농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를 통해 총 98종 1126대의 임대 농기계를 임대중이다.

앞으로도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업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한빛원자력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집중호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대응"

정읍시, 밤 9시 긴급대책 회의... 취약지역 예찰·24시간 비상 체계 가동

정읍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8일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취약지역 예찰과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회의는 기상청이 전국 각지에 강하고 많은 비를 예보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8일 오후 9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학수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실시간 기상 상황과 지역별 강우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는 관련 부서 국장과 과장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저지대와 상층 침수지역 관리 상태, 산사태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사전 예찰, 지하차도와 하천변 출입 선제 통제, 배수펌프장 등 주요 배수 시설 정상 가동 여부가 포함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비상 연락 체계 가동 상황도 꼼꼼히 확인했다.

시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 현장 예찰을 대폭 강화할 방침

이다. 위험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들이 신속 대피하도록 즉각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이울러 각 읍·면·동, 관계 기관과 직통 전화(핫라인)를 연결해 기상 상황 변화에 맞춰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기상 정보와 대피 요령도 빠르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는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 중심의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하천변 산책로나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위험한 곳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범람 우려 하천 현장 점검

폭우 속 아산면 주민전 찾아가... "주민 안전확보 만전 기해야"

심덕섭 고창군수가 폭우 속 아산면 주민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9일 고창군과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한 호우로 주민전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11시50분



을 기해 부정교(아산면 계산리)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심덕섭 군수는 주의보 발령 즉시 부정교 현장을 찾아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살피면서 상황악화시 주민 대피 메뉴얼 등을 점검했다. 다행히 오후 들어 고창지역에 빗줄기가 잦아들고,

바닷물도 간조 시간에 접어들면서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다.

이날 오전 한때 고창 지역에는 시간당 3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집중됐다. 다행히 오후들어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오후 1시 현재 호우경보는 호우주의보로 변경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